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음 8월 29일) 제16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오늘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세상 모든 소리 이곳에**

소리의 화수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통음악 판소리부터 월드뮤직까지의 세상 모든 소리를 대거 선보인다.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28개국 총165회의 무대공연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올해 소리축제의 특이점은 전통 판소리를 중심으로 판을 구성한다.

'판소리 다섯 바탕'은 첨단 미디어 연출로 판소리 공연의 정형성 탈피를 시도한다. 무대에선 판소리계의 거장 왕기석 명창의 '심청가'를 비롯해 박지운·임현빈의 '춘향가', 서정민의 '수궁가', 김선미·김찬미·양은희·원진주·정수인의 '홍보가', 김명숙의 '적벽가'를 만날 수 있다. 또 김나니·백현호·정세연·이제학·장상희 차세대 소리꾼들이 오송제 편백나무 숲 무대에서 펼쳐는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는 판소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더블빌'은 한 자리에서 두 개의 공연을 연속으로 관람하는 형식의 공연으로 무대에선 한국의 전통음악과 외국의 월드뮤직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선 한국의 '가곡'과 아제르바이잔의 '무감'을 통해 보컬이 선사하는 고도의 테크닉과 신비로움을 즐길 수 있다.

또 전북작곡가협회가 들려주는 이색적인 음악 '현대음악'으로 만나는 시나위와 터키의 조쉬켄 카라데미르와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통음악 판소리부터 월드뮤직까지의 세상 모든 소리를 대거 선보인다.

내달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서

28개국 참가 전통 판소리 중심으로 축제 구성

판소리 다섯 바탕, 미디어 연출로 정형성 탈피

더블빌·월드뮤직파트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

오제르 오펠의 무대에선 양국의 즉흥 음악으로 호흡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음악과 세계음악의 협연 '한폴 프로젝트 쇼팽&아리랑'은 폴란드 음악 감독 마리아 포미야노브스카가

끄는 오케스트라와 전북이 낳은 대표 소리꾼 연주자들이 폴라보를 펼쳐며 동서양 음악의 교류를 이어간다.

이국적인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파티 '월드뮤직파트'에는 프랑스의

로조와 한국의 들소리, 헝가리의 로맹고, 프랑스의 안-페슈 케메네트 파르텐, 한국·일본의 양방언 등이 낯선 음악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를 꾸미게 된다.

'K-soul diva3'에서는 한국 소울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윤복희와 한영애, 거미가 세대를 이어 한국 소울의 역사를 노래한다. 또 ds와 함께 하는 '별빛 콘서트'에는 조성모, 김현정, 동필원, 박기영, 이광조가 함께 출연해 대중적인 공연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개막공연은 판소리를 주축으로 한

한국전통음악과 세계의 다양한 민족 음악을 글로벌 연합오케스트라로 구성한다.

한국, 폴란드, 중국, 티벳, 프랑스, 일본, 인도, 미국, 뉴질랜드 등 15개국 전통음악이 연주되는 이 무대에 연주팀이 동시에 무대에 올라 각 나라의 개별 음악과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며 거대한 변주곡을 연주하듯 완성해 간다.

무대는 대형 페브리 천이 겹겹으로 드리워지고, 전 세계 대자연의 신비와 위용에 천착해온 중국의 사진작가 쑤정의 작품이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살아난다. /정해은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

이거 법 위반 해당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이를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문들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폭주하고 있어 직원들이 초비상 상태다.

이날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탭에는 문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5분이 멀다하고 새 글이 등록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권익위 홈페이지 민원콜센터 등에 법 관련 문의 쇄도

법 시행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800여건의 문의 글이 쏟아졌고, 본격적으로 게시판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1,800여건의 문의 글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답변이 달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9월초까지는 대부분의 문의 글에 답변이 이뤄졌지만 시행일이 임박해 서는 질문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란 탓도 있지만,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 권익위 입장에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적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만 글도 쌓여가고 있다.

강 모씨는 이날 '답변이 늦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 당사자외에는 볼 수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전화 문의 역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의 안내를 통하거나 권익위 내 청탁금지제도과로의 직접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3년

벌금 등 6000만원씩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에게 징역 3년과 벌금과 추징금 6,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건설사로 커 강보(74)씨에게는 징역 2년과 1억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이 발주한 35

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김 전 군수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를 위해 특허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A업체 내부 추정 금액인 25억원보다 무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A업체 운영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이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생활체육회로 나뉘때랑 똑같이" 전북도체육회, 또 바뀌나?

도의회 지적에... 도, 전국체전 마무리 후 개편안 마련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전북도의회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 3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의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진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7개월만이다.

전북도체육회는 통합 직후 사무처 조직을 2차 1실 7과 8팀으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시간에 쫓들리며 인위적이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합에 따른 효율성 있는 업무집행이 되지 못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일부 도의원은 현재 전북체육회의 스포츠진흥처와 지원육성처, 경영기획실로 나누어진 2차 1실이 전북체육회와 전북생활체육회로 나뉘어 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체육회는 2017년도 예산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도의회의 이러한 지적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도내의 체육인들은 빠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지

켜야 된다는 의견이 증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5회 소년체전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북 체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한 종목의 K회장은 "출범 된지 고작 몇 달 만에 효율성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며 "조직개편이 잦아질수록 체육인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1년의 시간은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우선 '07회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민근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